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이후 대강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듬는 기간입니다.
- 5월의 다섯째 주일은 가정의 달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 멋쟁이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한 달간의 공동체생활을 마치고 오늘 귀가합니다.
- 교회운영위회가 오후 2시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2 호
2021년 5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5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지키기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멋쟁이 학생들은 공동심화 수업으로 '5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지키기'로 주제 탐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나라와 교단 차원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일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5월의 기념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에 8시간 노동제와 경찰의 유혈 탄압에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람이 생산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1919년의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3.1운동 이후의 국민에게 국권 회복의 기대를 걸어보고자 1921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을 필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날짜를 바꾸어서 지켜왔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어린이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후에 국제 어린이날(1925.6.1.제정), 세계 어린이날(1954.11.20.제정)이 생겨났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날은 1930년 무렵 우리나라 기독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1973년에는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명칭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데, 빨간색은 어머니의 사랑과 감동을 흰색은 돌아가진 부모님을 추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교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존경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3년 전국청소년십자회의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제정하여 병중에 있는 퇴직교사를 위문하는 운동을 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1973년 정부시책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가 이후 1982년 교권 확립의 해를 맞아서 부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교사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교사의 날이 있는데 날짜는 제각기 다릅니다.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올해는 5월 17일(월)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각 지역과 마을마다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성년식 풍속이 점차 사라져서, 오늘날에는 국가에서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별도의 성년식을 행하면 더욱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날은 2007년 5월 17일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열린사회로 가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와서 특별히 기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부부의 날에 대한 내용은 뒤편의 지체들의 삶에 실려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지나기 전에 가족 간에 따뜻한 기억이 남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5월 마지막 주 되세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 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
< 신명기 6장 4-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도행전 2장
제목 :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다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88 182 190 420 505 438

1-13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해석 :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의 언어로 말하면서 퍼져나간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곳이다.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적용 : 하나님을 전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자.

14-42 베드로와 열한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해석 : 성령충만함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 세례, 가르침, 사귐, 예배(성만찬, 식사), 기도하였다.
적용 : 우리(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힘쓰자.
회개 -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 세례-구주로 고백, 성령충만, 가르침-배움, 사귀는 일, 예배 및 교제, 기도

43-47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다.
해석 :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적용 :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으로 하자.

부부의 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개역개정 창 2장 24절)

부부의 날은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기독교에서 먼저 시작한 날입니다.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경남 창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부의 날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는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의무입니다.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가 되라는 성경 말씀에서 그 의미를 따와서 5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2007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부의 날은 정식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화목한 부부 생활을 위한 부부 십계명을 함께 싣습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부 십계명
1.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2. 화가 났을 때 큰소리를 내지 말라.
3.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4.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5. 아픈 곳을 긁지 말라.
6. 분을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7.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8.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하지 말라.
9.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10.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로 됨을 믿으라.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마태복음 28 : 19 -20	인도자
*예배의 찬송	29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31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신명기 6 : 4 - 9	설교자
성가대 찬양	559	사랑방
설 교	"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쓰십시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2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쓰십시오

광야의 2세들에게 가르치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기 전에 유언적으로 당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2세들'(출애굽 이적, 홍해 이적, 시내산 율법을 경험하지 않은)이 가나안, 새로운 환경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2-3>

세 가지 교훈-메시지. 본문의 내용에서 세 가지를 교훈(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7> 둘째, 교육의 내용으로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4-5> 셋째, 교육의 방법으로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를 신앙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7-9>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쓰십시오. 신명기는 어려운 때에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은 신명기의 교훈에 근거하여,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해진 가정, 그리고 믿음이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쓰십시오.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을 신앙적인 환경과 분위기로 만드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어직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어람선생님이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네종류로 꾸러기들을 유혹합니다. ㅅ이는 선생님이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바람개비 만들기 1단계에 도전합니다. 흰 종이 앞뒷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만듭니다. 다섯 살인 ㅅ이는 아직 손놀림이 서툴러 오래 걸립니다. 가위질을 좋아하지만 곧게 오리는 건 어려워 도움을 받으며 조심스레 오립니다. 한 오십 분쯤 지났나, ㅅ이가 만족한 얼굴로 자기가 만든 바람개비를 들고 달립니다. ㅅ이가 만든 바람개비가 멋집니다. 다른 놀이를 하던 꾸러기들이 우르르 이어람선생님을 찾아갑니다. 1단계에 도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짧아서 내일 1단계 바람개비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맛보기로 2단계 - 색종이를 오려서 간단히 만드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모임이 끝나자마자 어제 약속한 대로 흰종이를 직접 꾸며 바람개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바람개비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약속은 지켜야하니까 열심히 그리고 칠하고 자르고 붙입니다. 3단계 4단계는 또 다른 정교한 가위질과 현란한 색조합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만 있으면 잘 놀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새로운 작업에 도전할 짬도 없이 바쁜 꾸러기들을 유혹하느라 큰 꾸러기 이어람 선생님은 오늘도 참 바쁩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지난 주부터 여러 어린이 친구들에게 나타난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전염도 막기 위해서 월, 화요일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이 많았지만 올해는 처음이었는데 1학년을 비롯한 모든 친구들이 잘 참여하였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얼굴이 반갑고 또 신기하기도 했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학교에서는 부모님들께 매일 등교 전에 어린이의 체온과 그 외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체크를 통해 체온이 높은 것 뿐 아니라 기침, 가래,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등교 준비 시간도 빠듯한데 체크리스트 작성도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일이 되어서 더 바쁘게 되었지만, 코로나와 작별할 때까지는 이 불편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주제탐험 주제는 '우리들의 말'입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주고 받는 말에 대해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3주 이상 가질 것입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싶어했지만 이번 멋쟁이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리인 시간으로 휴식을 함께하면서 아팠던 멋쟁이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으로는 보이스피싱 등 최근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신종 사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사기에 멋쟁이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만 뿐 아니라 주변 이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혜롭게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주는 다시 등교를 합니다.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코로나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개인별 텐트를 사용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지만 멋쟁이들에게 가장 멋쟁이다운 교육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고 가는 부담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고 의미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돈희 >

5월을 보내며

벌써 2021년 5월 말입니다. 코로나로 어린이학교 개학을 한지도 여러 달이 지났네요. 교실마다 가림막을 맞춰서 설치하고, 마스크도 여유 있게 갖추어 놓고, 교실마다 방역을 해야 하니 관련 제품들도 사서 설치해 둔 게 어제 같은데 말이죠....

어린이학교에선 매일매일 아침 학교에 오는 친구들 온도 체크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른 교실에 옮길 때 마다 소독액을 뿌리고, 개인 수건으로 닦고, 손을 자주 씻고 닦으며, 하교 후엔 공동체 식구들이 마지막으로 방역을 합니다. 멋쟁이 가족들은 매주, 그 외 선생님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아프고 힘들지만 함께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지요.....

요즘 어린이학교 아이들은 축구를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이내 다른 놀이를 생각해 내서 즐겁게 노는데, 위 운동장에선 공을 주고받는 '투바'라는 걸 하고, 재활용장에서 깡통을 가져와 찌그려 뜨려 깡통 차기를 하고, 그늘에선 사방치기를 하고, 삼삼오오 모여 나무 그늘 아래나 그네엔 속닥속닥 얘기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몇 주 전부턴 여러 부서가 생겨서 더 바쁘답니다.

아이들도 바쁘지만 나름 저도 엄청 바쁘답니다. 주제탐험 시간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텃밭을 조그마하게 교무실 뒤편에 일구어서 감자 10개, 피망 2개, 옥수수 10개, 토마토 2개, 고구마 3개, 치커리 2가지, 상추 2가지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스럽게 키워 주시듯 조그만 텃밭에 심은 작물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계십니다. 바쁘기도 하고 잊어서 물을 주지 못해 어쩌나 했더니 다음 날 비가 와서 작물을 쑥쑥 키워 주십니다. 역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계획 했던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힘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가끔씩 하는 일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학교에서 아이들과 알콩달콩 지내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아이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코로나를 잘 이기고 종식되어서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신나게 운동도 하고, 맘 놓고 예배도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잘 이겨내고 계신 사랑방 식구들 우리 모두 힘내자요~^* 언제나 제 글은 두서가 없네요~^* 하지만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나서 4장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5월 21일 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일간지 TOI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휴전이 채 1년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43%였습니다. 더이상의 무력분쟁으로 피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
   1) 모든 가정이 순조로이 잘 연합되게 하시며 흩어져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2) 봄 농사와 새터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들이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신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양하고 성실히 잘 준비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1) 사랑방공동체의 방모임이 잘 진행되도록
   2) 몸과 마음이 아픈 식구들을 위해서
   3) 사랑방공동체 학교들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어느덧 5월이 다 지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도 주초에는 황사 소식으로 답답한 날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비가 퐁당퐁당 자주 내려 상쾌하고 쾌적한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비가 내린 후의 공동체 마당은 정말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간은 멋쟁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월화는 온라인으로 수요일부터 등교하여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들어서 공동체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하셔서 다행이지만, 혹시 백신 후에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이 심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